



미 증시, 2분기 성장률 부진에도 제한적 강세

미국 증시 리뷰

29일(목) 미국 3대 증시는 2분기 성장률 및 실업지표 부진에도, 이로 인한 연준의 연내 조기 테이퍼링 우려 완화, 애플(+0.5%), 테슬라(+4.7%), 페이스북(-4.0%) 등 주요 기업들의 혼재된 주가 흐름에 영향을 받으면서 제한적인 상승세로 마감(다우 +0.4%, S&P500 +0.4%, 나스닥 +0.1%). 업종별로는 커뮤니케이션(-0.9%), 부동산(-0.2%)을 제외한 소재(+1.1%), 금융(+1.1%), 에너지(+0.9%), 경기소비재(+0.4%) 등 전업종이 강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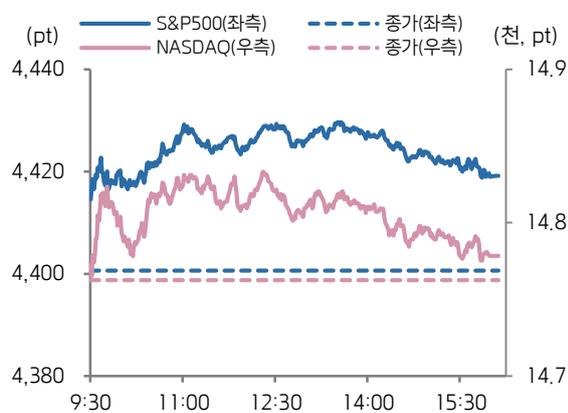
미국의 2분기 경제성장률 속보치는 6.5%(연율)로 전분기(6.3%)에 비해 확대됐으나, 예상치(8.4%)는 큰 폭 하회. 2분기 중 바이든 정부의 부양책 효과에 힘입어 개인 소비 지출(11.4%→11.8%)이 늘어났음에도, 비거주용 고정투자(12.9%→8.0%), 거주용 고정투자(13.3%→9.8%)가 둔화했다는 점이 2분기 성장률 부진을 견인. 2분기 근원 PCE 물가는 6.5%로 전분기(4.3%) 및 예상치(5.4%)를 큰 폭 상회하면서 2분기 중 미국 내 인플레이션 압력이 높았음을 재확인. 한편, 주간신규실업수당청구건수는 40.0 만건으로 전주(42.4 만건)에 비해 감소했으나, 예상치(38.0 만건)에는 미치지 못함

미국 증시 평가

경제 성장률 및 기업 실적 피크아웃 불안감이 상존하는 가운데, 금번 발표된 2분기 성장률 쇼크가 이 같은 불안감을 가중시킬 수가 있었음. 그러나 병목현상 등 일시적인 공급차질에서 기인한 재고 및 투자 감소가 성장률 하락의 주된 배경이었던 것으로 보이며, 민간 소비는 서비스를 중심으로 오히려 개선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 미국 경제 규모를 감안 시 5% 이상의 고 성장률 이후의 피크아웃은 불가피하지만 추후에도 인프라 투자를 통한 성장 모멘텀은 이어질 것으로 전망.

더 나아가 연준에서도 성장률의 과도한 피크아웃(성장률 대폭 하락)을 피하기 위해 연내부터 조기 긴축 사이클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감도 확산됐다는 점이 금번 2분기 성장률 부진을 시장이 큰 충격없이 소화하게 만들었던 것으로 판단.

S&P500&NASDAQ 일중 차트(7월 29일)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7월 29일 업종별 주가 등락률 상위 3



7월 29일 스타일별 주가 등락률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한국 증시 주요 체크 사항

한국 ETF 및 야간선물 동향	MSCI 한국 지수 ETF 는 +0.72% 상승, MSCI 신흥국 ETF 는 +0.5% 상승. 유렉스 야간선물은 0.22% 상승. NDF 달러/원 환율 1개월물은 1,143.59 원으로 이를 반영하면, 달러/원 환율은 2원 하락 출발할 것으로 예상.
주요 체크 사항	1. 아마존 실적 부진 및 시간외 주가 급락에 따른 국내 언택트주들의 주가 변동성 2. SK 바이오사이언스, 삼성중공업 등 국내 주요 기업들의 실적 발표 3. 전거래일 반등에 성공한 중화권 증시의 추가 상승에 따른 중국발 불안감 완화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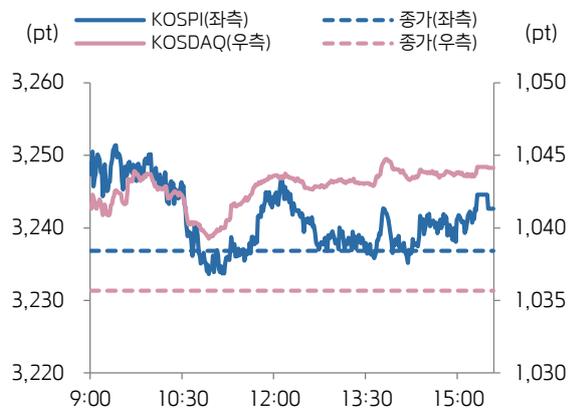
한국 증시 리뷰

29일(목) 코스피는 예상에 부합했던 7월 FOMC 결과, 중화권 증시 폭락세 진정, 원/달러 환율 하락 등 우호적인 대외 환경에도, 국내 2분기 실적 시즌 피크아웃 경계심리 속 개별 실적에 따른 업종간 차별화된 주가흐름을 보임. 또한 2분기 상세 실적을 발표한 삼성전자 등 반도체 업황センチ멘트 회복 지연이 전반적인 지수 상승탄력을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코스피 +0.2%, 코스닥 +0.8%). 업종별로는 음식료(+2.0%), 섬유 의복(+1.5%), 비금속광물(+1.1%) 등이 강세, 철강금속(-1.2%), 운수항공(-0.7%), 의료정밀(-0.6%) 등이 약세. 수급별로는 외국인과 개인이 각각 2,260억원, 180억원 순매도, 기관이 2,580억원 순매수를 기록.

한국 증시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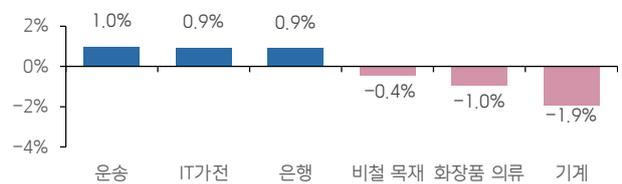
한국 증시는 미국 2분기 성장률 쇼크에도 상승한 미국 증시, 역외 원/달러 환율 하락, 중화권 증시 패닉 진정 등 양호한 대외 환경에도, 국내 2분기 실적 시즌 부담감이 전반적인 지수 움직임을 둔화시킬 것으로 예상. 현재까지 삼성전자, 현대차, LG 화학 등 대부분 시총 상위주들의 실적 발표가 진행. 2분기 실적보다 가이드언스 변화에 따라 주가 반응이 차별화되고 있다는 점은 시장 참여자들이 실적 시즌을 소화하는 과정에서 피크 아웃에 대한 부담감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보임. 다만, 피크 아웃 우려는 7월 이후 지속적으로 시장에 노출된 재료였던 만큼, 실적 시즌 후반부로 갈수록 완화될 전망. 한편, 최근 외국인 수급은 환율 뿐만 아니라, 미국 장 마감 후 미국 내 테크 대장주들의 시간외 주가 변화에도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모습. 현재 아마존이 장 마감 후 발표한 실적이 예상보다 부진했다는 소식에 시간외 주가가 7% 내외의 급락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감안 시, 금일 국내 증시에서도 성장주, 언택트주들의 주가 변동성 확대에 유의할 필요.

KOSPI & KOSDAQ 일중 차트(7월 29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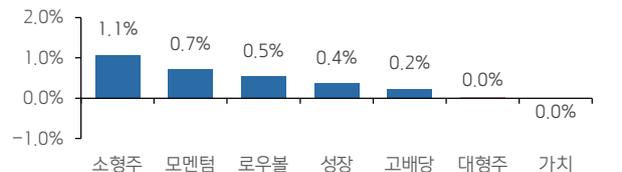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7월 29일 업종별 주가 등락률 상위 3



7월 29일 스타일별 주가 등락률



자료: Bloomberg, Quantiwise, 키움증권

Compliance Notice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동 자료에 게시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고지사항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고, 통지 없이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유가증권 투자를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당사 고객에게 배포되는 참고자료로서, 유가증권의 종류, 종목, 매매의 구분과 방법 등에 관한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이루어져야 하며,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체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를 무단으로 인용, 복제, 전시, 배포, 전송, 편집, 번역, 출판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